

유성기 음반극 : 대중극과 대중서사, 대중문화의 미디어극장*

우수진**

<차례>

1. 유성기 음반극: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표본
2. 고전소설극과 고전신파극 · 서구고전극 음반: '고전'의 재생산과 현대적 전유
3. 창작극 음반: 사랑/이별과 빈곤/실망/망향, 현실/역사의 대중서사와 그 교섭
4. 나가며: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지형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남아있는 유성기음반들 중 음반극을 분류하고 그것의 음반번호와 표제, 제목, 가시지와 음원의 여부를 목록화 함으로써 그 내용과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유성기 음반극이 당시 무대극과 영화, 소설, 유행가 등과 같은 대중적 문화 형식들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07년에서 1945년까지 발매되었던 음반들 중 현재 남아있는 -음반정보가 파악되는 음반들을 전수조사(全數調査)하여 음반내용에 따라 크게 음악과 극, 서사 분야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특히 '2인 이상의 대화적 상황이 포함된 연극적 구성물'을 '극'·다시 말해 '음반극'으로 범주화 한다. 그리고 유성기 음반극은 다시 고전소설극 · 고전신파극 · 서양고전극 음반과 창작극 음반으로 분류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고전소설극과 고전신파극, 서양고전극 음반은 각각 6편 · 16종, 2편 · 14종, 10편 · 17종이었으며, 창작극 음반은 총 161편 · 167종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볼 음반은 모두 214종으로 그 작품 수는 179편에 달한다.

유성기 음반극은 1920~30년대 연극과 문화의 장에서 무대극과 라디오극, 그리고 영화극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반극 연구는 당시의 대중극과 대중문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유성기음반 자체가 상업적인 판매상품이었던 까닭에 음반의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음반소비자 대중의 취향이나 유행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유성기 음반극의 경우에도 '고전' 레퍼토리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전들의 음반화는 말 그대로 고전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고전의 가변성, 즉 고전이 변용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전유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사회의 형식과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창작극 음반은 음반극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음반극에서만 아니라 무대극과 영화, 소설, 가요 등에서 널리 인기 있는 소재들과 등장인물들을 토대로 하는 대중서사들이 조금씩 유사한 듯 다르게 변용적으로 차용되었으며, 잘 알려진 기존의 무대극 및 영화 배우들과 무성영화 변사, 가수들이 녹음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선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이서구의 <어머니의 힘>, 그리고 유지진의 <토막>과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 등은 당시의 대중극 및 대중서사와 적극적으로 교섭, 수용한 결과였다.

음반극은 당시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극작가와 배우, 가수 등에 대한 새로운 지형도를 제시한다. 음반극 안에서 작사가와 극작가, 배우, 가수의 영역과 경계는 유동적인 것이었고, 이들의 활동은 영역과 경계를 넘나들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음반극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대중극 및 대중문화의 장에서 활동했던 배우들의 존재를 드러내준다. 여기에는 당시의 신문과 잡지 기사들, 그리고 기존의 근대연극사/희곡사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배우들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수의 배우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제어: 고전소설극, 고전신파극, 대중극, 대중문화, 미디어연극, 미디어극장, 상업극, 서구고전극, 유성기, 유성기음반, 유성기 음반극, SP

1. 유성기 음반극: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표본

1977년 마틴 에슬린(Martin Esslin)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입각해 연극의 본질이 현장성보다는 “행해지는 허구(enacted fiction)”¹⁾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무대극은 연극이라는 표현형식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가 되었다고 했다. 오랫동안 무대에서 이루어져왔던 ‘인간 행동의 모방’이, 근대 이후 새롭게 등장했던 라디오나 영화,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실현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²⁾

무대 역시 하나의 미디어라는 점에서 근대는 미디어 연극/극장의 시대였으며, 그 영역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배우와 작가, 연출

1) 마틴 에슬린, 원재길 옮김, 『드라마의 해부』, 청하, 1987, 11~15면.

2)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우수진의 『미디어극장의 시대, 유성기와 라디오』, 『한국학연구』 제34집, 2014.8, 145~151면을 참고할 것.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8720).

** 연세대학교 강사

가, 기술진 등과 같은 각종 인적 자원들과 작품들 그리고 관객/청중/소비자 등은, 무대나 유성기음반, 라디오, 영화, TV 등의 미디어를 활발히 만나고 있으며, 문학이나 음악 등의 인접 문화형식들과도 적극 교류하고 있다. 연극/극장 연구가 문화 연구의 성격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대연극 연구는 무대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90년대 이후에는 대중매체의 문화적 영향력이 급증함에 따라 특히 영화극과 TV극이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 역시 연극의 분야 안에서 적극 수용·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의 미디어연극 중 하나인 유성기 음반극이나 라디오극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논외에 가까울 정도로 과소하다.

유성기 음반극은 1920~30년대 우리의 연극과 문화의 장에서 무대극과 라디오극, 그리고 영화극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성기(留聲機, gramophone)는 소리를 재생산하는 근대미디어로서 19세기 말경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1877년 원통형으로 처음 발명되었던 유성기 음반은 1907년에 보관과 운반이 용이한 평원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반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전기 녹음 방식의 개발로 그 음질까지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초기 유성기음반의 내용물은 주로 전통음악이었다. 하지만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신식 유행가와 동요, 교회음악 등과 같은 서양음악 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이야기, 연설 등도 음반화 되기 시작했다. 현재 광고를 통해 최초인 것으로 확인되는 연극과 영화 음반은 1926년 김덕경의 ‘영화설명’ <저 언덕을 넘어서(오버디힐)>(일축조선소리반K590)와, 1927년 김영환의 ‘영화설명’ <동도(東道)>(일축조선소리반K621), 이월화-안중화의 ‘극대사(劇臺詞)’ <카르멘>(제비표조선레코드B140), 김영환의 ‘영화설명’ <애국의 나팔>(제비표조선레코드B141)이다. 이 때 ‘영화설명’이나 ‘극대사’ 등은 일종의 표제(title)로서 음반의 성격을 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였다. 표제의 표기방식은 대체로 통일적이었으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음반과 가사지, 신문광고 상에 표기된 표제가 각각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다.³⁾

김재석은 일찍이 가사지가 확인되는 90편의 음반극을 대상으로 하여, 음반극을 ‘짧은 공연물’이란 의미의 ‘촌극(寸劇)’이란 용어로 명명하였다.⁴⁾ 그러나 음반극의 ‘길이’는 어디까지나 ‘음반’이라는 미디어의 자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⁵⁾ 그리고 ‘촌극’이라는 용어는 무대극의 형식에 좀더 범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⁶⁾ 이 논문에서는 ‘음반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음반극’이라는 용어는 최동현·김만수의 논문인 「일제 강점기 SP음반에 나타난 대중극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최동현·김만수는 이 논문과 「1930년대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만담·년센스·스케치 연구」에서 희극 음반 143편과 대중극 음반 93편을 고찰하였다.⁷⁾ 하지만 이들의

- 3) 표제의 표기 방식은 음반회사에 따라, 그리고 각각의 음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표제 자체를 그대로 음반극의 하위장르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참고를 위해 본문의 음반극 목록에는 음반극 각각의 표제를 명기하였다.
- 4) 김재석은 ‘촌극’이 우리의 전통적인 ‘화극(話劇)’의 부활이자 전통극과 근대극을 이어주는 매개의 형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극과 년센스, 스케치, 만담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이 ①궁핍한 생활을 드러내고, ②금전 중시의 결혼관 및 남성우위의 가정생활 비판하며, ③기생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④ 가벼운 웃음거리(말꼬리잡기형, 말장난형, 재치대결형, 실수형)로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김재석, 1930년대 유성기음반의 촌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1992.
- 5) 유성기음반은 1분당 78회전으로서 그 재생시간은 한 쪽 면에 3분 내지 3분 30초 정도로 양면을 합해 7분 정도였다.
- 6) 실제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촌극’에는 ‘이주 짧은 단편적인 연극’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우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도 ‘sketch’를 “4. A short play or performance of slight dramatic construction and usually of a light or comic nature”로 정의하고 있다.
- 7) 최동현·김만수,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영화설명 대본’에 대하여(자료해설), 『한국극예술연구』 제6집, 1996.7; 「1930년대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만담·년센스·스케치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7집, 1997.6; 「일제강점기 SP 음반에 나타난 대중극에 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8집, 1998.6. 이외에도 음반극 자료집으로서 『일제강점

대중극 음반 목록에는 음반극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 ‘영화설명’과 ‘화(話) 형식’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표제를 기준으로 음반을 구분했기 때문에 표제와 달리 음반의 실제내용이 극형식인 일부 작품들이 제외되기도 했다.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1907년에서 1945년까지 발매되었던 음반들 중 현재 남아있는 음반정보가 파악되는 음반들을 전수조사(全數調査)하여 음반내용에 따라 크게 음악과 극, 서사 분야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특히 ‘2인 이상의 대화적 상황이 포함된 연극적 구성물’을 ‘극·다시 말해 ‘음반극’으로 범주화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집인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의 『한국유성기음반: 1907~1945』(전5권)과 유성기음반 아카이브, 유성기음반 가사집, 유성기음반 관련 CD집, 그리고 KBS·MBC 및 개인소장자들의 유성기음반 음원 등을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한다.⁹⁾ 그리고 유성기 음반극은 다시 고전소설극·고전신파극·서양고전극 음반과 창작극 음반으로 분류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고전소설극과 고전신파극, 서양고전극 음반은 각각 6편·16종, 2편·14종, 10편·17종이었으며 따라서 총 18편·47종, 창작극 음반은 총 161편·167

종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볼 음반은 모두 214종으로 그 작품 수는 179편에 달한다.¹⁰⁾ 이 논문은 일부 자료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¹¹⁾ 현재 남아있는 자료 전체의 실태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유성기 음반극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¹²⁾

이 논문은 남아있는 유성기음반들 중 음반극을 분류하고 그것의 음반번호와 표제, 제목, 가시지와 음원의 여부를 목록화 함으로써 그 내용과 전모를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유성기 음반극이 당시 무대극과 영화, 소설, 유행가 등과 같은 대중적 문화 형식들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유성기 음반극 연구는 1920~30년대 대중극과 대중문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유성기음반 자체가 상업적인 판매 상품이었던 까닭에 음반의 기획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음반소비자 대중의 취향이나 유행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장한몽>이나 <불여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부활(카츄사)> 등과 같이 무대극으로나 대중서사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었던 레퍼토리들은 반복적으로 음반화 되었으며, 음반 녹음에도 주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배우와 변사, 가수 등이 참여했다.

기 유성기음반 속의 대중희극』과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 속의 극·영화』(김만수·김동현, 태학사, 1997·1998)가 있다.

- 8) 이 외에 극예술연구회의 음반극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박명진, 30년대 유성기 음반 희곡의 근대성, 『국어국문학』 제124집, 1999.5; 김상고, 『극예술연구회의 방송극 연구』, 『한국연극학』 제12권, 1999; 서재길, 드라마, 라디오, 레코드 - 극예술연구회의 미디어 연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6집, 2007.10.
- 9) 이보형·홍기원 배연형 편저, 『유성기음반가사집: 전통음악·극 양악·유행가』 1·2, 민속원, 1990·1994;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3·4: 콜롬비아 음반』, 민속원, 1992·1994; 최동현·임명진, 『유성기음반 가사집 5·6: 리갈, 콜롬비아』, 민속원, 2003; 이준희 장유정 엮음, 『유성기음반 가사집 7』, 민속원, 2008;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엮음, 『한국 유성기음반: 1907~1945』, 한결음 더, 2011; <유성기로 들던 연극모음>(신나라레코드 발매 CD집, 1996); <유성기로 들던 무성영화모음>(신나라레코드 발매 CD집, 1997); <1934년 그 해 이 땅의 연극(콜롬비아 유성기 원반 13)>, 노재명 편, LG미디어 발매, 1996; 한국 유성기음반 아카이브 홈페이지(www.sparchive.co.kr); 기타 유성기음반의 음원자료들 등.

- 10) 여기서 집계한 전체 작품 수와 종수는 서구고전과 창작 음반극 목록에서 중복 계산된 <지나간그날>(Polydor19091)을 ‘-1’한 것이다. <지나간그날>은 일종의 극중극 형식으로서 창작극인 바깥이야기에 번역극 <부활>과 창작극 <아리랑>이 극중극으로 들어가 있어 서구고전과 창작 음반극 목록에 모두 포함시켰다.
- 11) 앞서 김재석의 논의는 극 40편, 넘센스 27편, 스케치 18편, 만담 5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김만수의 대중극 논의는 창작극 44편, 영화해설 18편, 변안극과 변안영화 21편, 기타 10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 12)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유성기음반의 ‘작품’과 ‘종(種)’을 구분적으로 사용한다. ‘종’은 말 그대로 음반의 종류를 일컫는 것인데, 예컨대 하나의 작품은 여러 음반회사를 통해, 그리고 한 음반회사의 음반 재발매를 통해 여러 종의 음반으로 발매될 수 있다. 한편 음반 1종의 음반 매수는 여러 장일 수 있다. 예컨대 <표3>에서 작품 <부활>은 5종의 음반극으로 발매되었는데, 그 중 1종인 ‘영화극’ <부활(카츄사)>는 콜롬비아음반회사에서 두 장의 음반(음반번호 Columbia40019·40020)으로 발매되었다. 반면에 1종 1장의 음반에 2작품이 음반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실리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인기 있는 소재들이나 등장인물들, 대중서사들은 음반극에서만 아니라 무대극과 영화, 소설, 가요 등에서 널리 변용적으로 반복 차용되었다. 예컨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정사(情死) 사건이 그대로 연극과 영화설명, 유행가 등의 음반으로 제작 발매되기도 했으며, 역으로 음반극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레퍼토리들이 이후 무대화 되거나 영화화 되기도 했다. 이서구의 <어머니의 힘>이나 유치진의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과 <토막-쌈보 일가의 이향>과 같은 작품도 당시 음반극에서 빈번히 재/생산되었던 빈곤과 이향의 모티프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성기 음반극 연구는, 특히 동양극장을 주무대로 공연되었던 1930년대 대중극의 대본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로 중요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기서는 -최동현·김만수가 대중극 음반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변사 1인의 내레이션으로만 이루어지는 ‘영화설명’ 및 ‘영화해설’ 음반이나 낭독자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화 형식’ 음반은 서사 분야로 구분하여 음반극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¹³⁾ 대신에 ‘극(劇)’이나 ‘극대사(劇臺詞)’, ‘비극(悲劇)’, ‘사극(史劇)’, ‘영화극’ 등을 표제로 하면서 음반의 실제내용 역시 연극적 구성물로 되어 있는 음반들과, ‘애화(哀話)’나 ‘비화(悲話)’와 같은 서사적 표제에도 불구하고 음반의 실제내용이 연극적 구성물로 되어 있는 음반을 모두 음반극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 외에 ‘판소리’나 ‘창극(唱劇)’, ‘가극(歌劇)’ 음반과 같이 음악과 노래가 중심인 것은 음반극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가요극(歌謠劇)’ 음반 중에서 연극적 구성이 강한 것은 음반극의 범주에 포함

13) 다만 여기서 서사 분야로 분류한 영화설명·영화해설 중에서 변사 1인의 내레이션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변사 1인의 내레이션과 1인 다역의 연극적 상황으로 구성된 음반에 대해서는 추후 재론하기로 한다. 그리고 만담과 같이 기본적으로 서사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이 참여하여 연극적 성격이 강한 음반 역시 여기서는 일단 서사 분야로 구분하였고, 추후 재론하고자 한다.

시킨다.

단, 음반극 중에서도 특히 ‘년센스’와 ‘스케치’, ‘코메디’를 표제로 하는 희극 형식의 음반들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 방대한 까닭에 별도의 논문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한편 ‘만극’과 ‘춘극’, ‘풍자극’, 그리고 ‘희극’ 표제의 음반들은 함께 목록화 한다. 이들 음반은 ‘년센스’와 ‘스케치’, ‘코메디’ 표제의 음반에 비해 그 양이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희극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¹⁴⁾ 반면에 ‘만곡’이나 ‘만요’와 같이 음악적 표제의 음반들은, 그 중 일부가 연극적 구성의 형태를 띠다고 해도 해당 표제의 음반 전체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고전소설극과 고전신파극·서구고전극 음반 : ‘고전’의 재생산과 현대적 전유

‘고전(古典)’은 언제나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문화콘텐츠 중 하나이며, 유성기 음반극의 경우에도 ‘고전’ 레퍼토리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춘향전>과 <심청전> 등과 같은 고전소설(또는 판소리)과 <장한몽>과 <불여귀>와 같은 고전신파극, <부활>과 <장발장> 등과 같은 서구고전 등은 실제로 여러 음반 회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작·발매되었다. 고전들의 음반화는 말 그대로 고전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고전의 가변성, 즉 고전이 변용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전유됨으로써, 고전 자

14)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음반내용에 따라 희극 장르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단 년센스와 스케치, 코메디를 표제로 하는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목록화 하였다.

체보다는 새로운 시대사회의 형식과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1. 고전소설극 음반

고전소설 또는 판소리가 음반화된 것은 모두 6편, 즉 <심청전>과 <춘향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 <추풍감별곡>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재생산된 작품은 <심청전>(6종의 음반)과 <춘향전>(‘닌센스’ 음반 1종을 제외하여 5종의 음반)이었으며, <장화홍련전>은 ‘영화설명’을 제외하고 2종의 음반, <홍길동전>은 ‘극 낭독’을 제외하고 1종의 음반, <추풍감별곡> 역시 ‘독서’와 ‘소설낭독’을 제외하고 1종의 음반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고전소설(판소리) 음반극은 모두 16종이었으며, 이 중 가사지와 음원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4종, 가사지만 확인되는 것은 4종, 음원만 남아있는 것은 4종이다(<표-1> 참조).

고전의 음반화는 근대 미디어를 통해 고전이 새로운 방식과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수용되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음반극은 본래 시청각적인 관객의 경험을 청각에 한정 또는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짧았던 물리적 재생 시간으로 인해 관객(감상) 경험을 분절화 시켰다. 하지만 음반극은 무대극과 달리 언제 어느 때나 그것도 반복적인 관객(감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여성 관객의 경우에 그것은, 특히 극장 출입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감안한다면, 문화적 혁신이었다.

<표-1>의 목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심청전>과 <춘향전>이 음반극을 통해 좀더 적극적으로 재생산되고 전유되었다는 사실과 그 방식에 있다. <심청전>의 음반극은 거의 대부분이 원작에 충실하였으나, ‘만극(漫劇)’ <모던 심청전>은 그 배경을 현대화 하였다. 이 작품에서 심청이는 고무공장의 여직공으로, 심봉사는 맹아학교의 선생님이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심봉사는 집으로 오던 중 낙상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치료비 삼백원만 있으면 제중원의 유명한 의사가 게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심봉사는 이 말을 딸 심청이에게 전하지만, 옆에서 함께 듣던 뽕떡어멈은 “공양미삼백석에 붓치님도못쓰게한봉사님의눈을” 어찌 고치겠느냐면서 공연히 심청이만 고생시키지 말라며 핀잔을 준다. 하지만 효녀심청은 돈 삼백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하얼빈의 댄스홀에 자신의 몸을 판다. 눈뜨고 싶은 마음에 몽운사 회주승에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던 심봉사의 어리석음은, ‘하루빈’의 ‘썸스홀’에 다녀온다는 심청이의 말을 ‘하루썸해(하룻길에)’, ‘단사홀’ 다녀온다는 말로 잘못 듣고 흔쾌히 보내주는 모습으로 희화화 된다. 그리고 댄스홀로 향하는 심청이의 모습을 통해 가난 때문에 딸들이 여전히 권번이나 카페, 댄스홀 등으로 팔려가는 세태가 씩씩하게 풍자된다.

<춘향전>은 과반수 이상의 음반, 즉 6종의 음반 중 4종의 음반(닌센스 음반 포함)이 희극으로 재생산되었다. 그 중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만극’ <유선형 춘향전>과 ‘폭소극’ <요절 춘향전>으로서, 이들 작품 역시 현대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세태를 희화화 했다. <유선형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자전거에 위스키와 바이올린을 싣고 광한루에 하이킹을 왔다가 그네 타는 춘향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한양으로 떠나는 길에 이몽룡은 춘향에게 “『스마트』한 양장한벌” 사다주기로 약속하고 “한양행오전구시십삼분차”(기차)에 몸을 싣는다. <요절 춘향전>에서는 방자가 광한루에서 술을 좀 가져오라는 이몽룡의 말에 “네 술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관술도있고 잡술도있고 괴술도있고 오술도있고 마술도있고 도술도있고 미술도있고 예술도있습니다 무슨술로가져올가요”라고 사설을 푼다. 이몽룡이 그냥 먹는 술로 가져오라고 하자 “잡숫는술로일러도 쏘여러가지가있습니다 무주 탁주 약주 소주 과주 황주 정종 아메리카 각텔도있고 영국위스키 불란서포도주 독일맥주 로서아 썸々々々々”고 답한다. 결국 이몽룡은 “식언한비루한병”을 요구한다.

<표-1> 고전소설극 음반: 총6편·16종

* 이후 <표>에서 '년센스'·'스케치'·'코메디' 음반곡은 열은 회색바탕, 음반곡이 아닌 서사음반은 짙은 회색바탕으로 표시했으며, 음원 표시 중에서도 연구자가 음원을 직접 확인한 것은 '◎' 표시하였다. 음원의 구체적인 소장처는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번 편수/종수	음반번호	표제	제목	저자	취입	발매일	가사지	음원
1	1 Columbia 40065	영화극	심청전		김영환·복혜숙 박녹주	1930.1		○
	2 RegalC456	비극	심청이	김다인 각색	박세명 지경순	1938.1	○	◎
	3 Victor KJ-1136	극	심청전	이서구 작	청춘좌	1937.12		○
	4 Taihei 8608 8609	고대 비극	애화 심청이	김향 각색	강남설 김향	1943.1 (추정)		○ 8608
	5 Kirin C155·156	고대 비극	심청전	김진문 편	김진문 한석 (창 김월선)	1934.12		
	6 RegalC302	만극	모던 심청전		김선조·김성운 이리안	1935.11	○	◎
2	1 Columbia 40146·40147	극	춘향전		박영환 이애리스·윤혁 박녹주	1931.2	○	◎
	2 Okeh 31116 ~31120	가요극 15)	춘향전 1~10	조명암 작	유계선·박창환 이백수 강정애 (외) (주제가 남인수 이화자)	1942.8		
	3 Columbia C2033·C2034	만극	유선형(流線型) 춘향전	김원호 작	김원호 복혜숙	1940.4	○	◎
	4 Okeh1634	폭소극	요절 춘향전		신불출 성광현	1934.2	○	
	5 KirinC164	만극	삼도(三道) 춘향전		김태평	1934.3		
	Chieron104	년센스	모던 춘향전	이서구 작사	신불출·김연실 신은봉	1933.6		○
3	1 Okeh1742	고대소설 극화	장화홍련전	김능인 편	신은봉·차홍녀 신불출 김효산	1934.12	○	
	2 Okeh 31151 ~31156	가요극 (고대소설 가창비극)	장화홍련전 1~12		유계선·김양춘 복혜숙 이백수 (주제가 이난영)	1943.2	○	
	Columbia 40250	영화 설명	장화홍련전		김영환 해설 노래 이애리스			◎
4	1 Okeh1644	사건 (史傳) 비극	홍길동전 출가(出家)편	김능인 편	신불출·성광현 나품심·신일선 김창배	1934.3	○	

	Victor49310	극낭독	홍길동	황철 각색	황철	1934.9		
5	1 Columbia 40037 40038	고대 비극	숙영낭자전 1~4		서월영 복혜숙	1929.7		
	Victor KJ-1080	영화 설명	숙영낭자전		김영환 해설	1936.3		◎
6	1 KirinC 176 177	고대 비극	추풍감별곡		이소연·석금성 양백명·강석제 유장안·최승이 김남수(창)	1934.3		○
	제비표조선 레코드B입30	독서	추풍감별곡		김죽사			
	일축조선 소리반 K606~K618	소설 낭독	추풍감별곡		백모란			
	일축조선 소리반 K806	소설 낭독	추풍감별곡		김옥엽			
	Columbia 40242	소설 낭독	추풍감별곡		백모란			
	Victor KJ1069	소설 낭독	추풍감별곡		박월정			

2.2. 고전신파극 음반

고전신파극은 특히 <장한몽>과 <불여귀>와 같은 작품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빈번히 음반화 되었다. 이들 작품은 모두 14종으로 음반화 되었으며('년센스' 음반 2종 제외), 이 중 가사지와 음원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4종이고 가사지만 남아있는 것은 1종, 음원만 남아있는 것은 5종이다(표-2 참조).

<장한몽>은 잘 알려져있듯이 오자키 코요오(尾崎紅葉)의 소설 『곤지키야사(金色夜叉)』를 원작으로 하여 1913년 5월 13일에서 10월 1일까지 조

15) 오케음반회사에서 발매한 가요극 <춘향전>의 가사지와 음원은 확인되지 않지만, 함께 기획되었던 가요극 <장화홍련전>의 가사지를 통해 그 연극적 구성방식을 확인, 음반곡으로 분류하였다.

일제에 의해 번안되어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연재 중이었던 7월 27~29일에 당시 이기세가 이끌던 유일단에 의해 연흥사에서 그 전편이, 8월 8~10일에는 그 상편과 중편이 초연되어 큰 인기를 끌면서, 이후 대표적인 신파극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불여귀>는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의 『호토도기스(不如歸)』를 원작으로 하는 것으로, 1912년 8월 조일제에 의해 번역 간행되기 직전인 2월에 조일제와 윤백남이 함께 했던 문수성의 창단공연으로 원각사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이다. <불여귀>는 비록 <장한몽>이나 <눈물>, <쌍옥루> 등에 비해 그다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었으나, 원작의 유명세에 힘입어 세 차례나 음반화 되었다.

우선 <장한몽>은 모두 12종의 음반(‘년센스’ 음반 1종 제외)으로 발매되었다. 그리고 12종의 음반 중 8종의 음반과 다른 1종의 ‘년센스’ 음반 즉 ‘극’ <서양 장한몽>과 ‘극’ <장한몽 후일담>, ‘극’ <신작 장한몽>, ‘극’ <신편 장한몽>, ‘만극’ <컵텔 장한몽>, ‘희극’ <만국 장한몽>, ‘만담’ <익살 장한몽>, ‘춘극’ <깨어진 장한몽>, ‘년센스’ <이도령과 심순애>-이 그 제목을 고려해볼 때 현대적으로 재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사지와 음원을 통해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영화극’ <장한몽>과 ‘명작비극’ <신장한몽>, ‘극’ <장한몽>(RegalC312), ‘만극’ <컵텔 장한몽>과 ‘희극’ <만국 장한몽>이다. 일반적으로 <장한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대동강변의 이별 장면으로서, 이수일이 김중배로 인해 심순애와 크게 싸우고 결국 헤어지면서 하늘에 뜬 달에다 복수를 맹세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들 음반곡도 거의 다 이 장면을 담고 있다. 다만 <컵텔 장한몽>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서로 다른 지역의 출신으로 설정하고 대사를 각 지역의 사투리로 특색있게 처리하였다. 즉 순애는 평양, 수일은 영남, 김중배는 충청도, 수일의 친구는 함경도 사람으로 설정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을 각각의 사투리를 통해 희극적으로 성격화 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희극 <만국 장한몽>에서는 이수일을 중국 사람, 심순

애를 영국 사람, 김중배를 조선 사람으로 설정하여 희극적 효과를 내었다. 극중에서 순애는 대국(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일을 만류하며, 김중배에게 밀천을 얻어줄 테니 떠나지 말고 여기(조선)에서 호떡장사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다. 원작에서 돈 때문에 사랑을 잃고 동정의 대상이 되었던 이수일은 여기서 오히려 희화화 된다.

한편 <불여귀>는 ‘영화극’ <불여귀>와 ‘극’ <불여귀> 등 2종의 음반(‘년센스’ 음반 1종 제외)으로 발매되었으며, 2종의 음반 모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음반은 <불여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즉 무남이가 강화도 있는 별장에 요양 가있는 낭자를 찾아와 병문안하는 장면을 음반화하였다. 이 장면에서 낭자는 무남과 함께 바닷가에서 산책하다가 잠시 앉아 쉬면서,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 무남과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싶다고 말하며 삶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낭자의 대사라는 점에서 독자와 관객의 안타까움을 더욱더 불러 일으킨다.

<표-2> 고전신파극 음반: 총2편 · 14종

연번 편수/종수	음반번호	표제	제목	저자	취입	발매일	가사지	음원
1	1 Columbia 40004 40005	영화극	장한몽		서월영 복혜숙· 실명 김영환	1929.2	○	◎
	2 RegalC458	명작 비극	신장한몽	송아지 각색	박세명 지경순	1938.12	○	◎
	3 RegalC312	극	장한몽	김병철 안	도무·이리안	1936.2	○	
	4 Chieron37	극	서양 장한몽		서월영 김연실	1932.5		○
	5 Polydor19150	극	장한몽		심영·신은봉	1934.7		
	6 PolydorX510 (재발매)	극	장한몽		심영·신은봉	1938.12		○
	7 Okeh1931	극	장한몽후일담			1936.10		
	8 KirinC218	극(?)	신작 장한몽		성광현 윤홍심	1937.8		
9 Victor KJ-1162	극	신편 장한몽	송영 작	심영·한은진	1937.11		○	

	9	Columbia 40329	만곡	커틀 장한몽		심영 박재행·김선영	1932.7		◎
	10	Taihei8013	희극	만곡 장한몽		성광현 윤백단	1932.11	○	○
	11	Okeh12076	만담	익살장한몽			1937.11		
	12	CoreaH4	춘극	깨어진 장한몽		이경일 문숙방	1935.4		
		Okeh1941	넌센스	이도령과 심순애			1936.11		
2	1	Columbia 40093 40094	인장극 영화극	불여귀		김영환 복혜숙	1930.3		◎
	2	RegalC312	극	불여귀	김병철 안	도무 이리안	1936.2	○	◎
		Okeh1675	넌센스	패사 불여귀		신불출 이옥례·김진문 신일선	1934.5		

2.3. 서구고전극 음반

서구의 고전이 음반화 된 것은 모두 10편, 즉 <부활>(톨스토이 원작)과 <춘희>(뒤마 원작), <레미제라블>(위고 원작), <카르멘>(비제 원작), <데아부로>(미상), <로미오와 줄리엣>(셰익스피어 원작), <인형의 집>(입센 원작), <베니스의 상인>(셰익스피어 원작), <폭풍우>(오스트랍스키 원작), <빌헬름텔>(실러 원작)이었다. 서구고전 음반극은 고전소설 음반극이나 고전신과 음반극과 달리 원작의 특별한 변용 없이 대표적인 장면들을 원작 그대로 음반화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서구고전 중 특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부활>과 <춘희>, <레미제라블>을 제외한 작품의 경우에는, 음반화의 목적이 상업적인 대량판매보다 교양적인 작품의 소개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고전 음반극은 모두 17종이었으며, 그 중 가사지와 음원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9종, 가사지만 남아있는 것은 3종, 음원만 남아있는 것은 1종이다(표3 참조).

이 중 <부활>와 <춘희>, <레미제라블>은 특히 인기가 높아 여러 차례 음반화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들 작품이 이미 단순한 서구의

고전 이상의 친숙한 대중서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부활>은 1915년 동경예술좌의 내한 공연 이후 그 극중가(劇中歌)인 <카츄샤의 노래>가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 다음해인 1916년에는 예성좌에 의해, 이후 1923년에는 토월회에 의해서 <카츄샤>라는 제목으로 공연되어 흥행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소설로는 1918년에 극중가인 <카츄샤의 노래>가 포함된 축역재구성본이 『해당화』로 출간된 이후, 『매일신보』(1922.7.11.~1923.3.13)에서 춘계생(春溪生)에 의해 완역 연재되었고, 그 후에는 카츄샤의 후일담을 담은 속편까지 단행본으로 출간되거나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¹⁶⁾ <춘희>와 <레미제라블>의 대중서사화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부활>은 모두 5종의 음반극(‘스케치’ 음반 1종 포함)으로 발매되었으며, 1종의 ‘영화설명’ <설명레뷰> 음반에도 작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그여자의 일생> 음반극의 후편¹⁷⁾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사지나 음원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영화극’ <부활(카츄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고모님 댁을 찾아와 그날 밤에 네플류도프가 카츄샤를 유혹하는 장면과, 이후 재판장에서 우연히 카츄샤를 보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깨우친 네플류도프가 감옥소로 카츄샤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카츄샤가 끝내 네플류도프의 청혼을 거절하고 둘이 이별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극예술연구회가 녹음에 참여했던 <부활> 음반은 네플류도프가 감옥소로 카츄샤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청혼하는 장면과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네플류도프가 카츄샤의 무

16) 좀더 자세한 논의는 우수진의 무대에 선 카츄샤와 번역극의 등장」(『한국근대문학연구』 제28호, 2013. 10)과 「카츄샤 이야기 -<부활>의 대중서사와 그 문화 변용」(『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2)을 참고할 수 있다.

17) <그여자의 일생>은 전편 1장과 후편 1장, 총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936년 8월과 10월에 각각 Polydor19335·19336으로 발매된 이후 1939년 5월에 PolydorX549·550으로 재발매되었다. 이는 <표-3>을 참고할 것.

죄사면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청혼하지만 카츄샤가 결국 거절하고 둘이 이별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들은 원작의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음반화 하였다. 음반 <지나간 그날>은 배우 신일선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녹음되었는데, 그 안에서 신일선은 <부활>과 <아리랑>의 한 장면을 극중극 형식으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극중극 <부활>에서는 감옥소에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네플류도프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카츄샤를 연기했다. 한편 음반 <그여자의 일생: 「카츄샤 레코드극화」(전편)는 감옥소 여감방에 갇힌 카츄샤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마리아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십년 전 부활절 밤에 네플류도프가 자신을 유혹했던 일, 그 후 고모님 댁을 나와 매춘부 생활을 하던 중 살인혐의를 받게 된 일, 그리고 네플류도프가 미씨라는 여인과 약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일 등등을 카츄샤는 서글프게 풀어낸다. 전편의 내용과 형식을 통해 볼 때 <그여자의 일생> 후편은 이후 네플류도프가 감옥소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스케치’ 음반극인 <카츄샤의 하소>는 말 그대로 하소연에 가까운 카츄샤의 독백과 노래, 짧은 연극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네플류도프가 자신을 유혹한 부활절 밤에 대한 카츄샤의 회상적인 독백과 노래가 있는 후 네플류도프가 카츄샤를 유혹하는 짝막한 장면이 이어진다. 그리고 뒷면에서는 노래 다음에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카츄샤가 자신을 유혹한 네플류도프에 깊은 원망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다소 긴 대사가 이어진 후 다시 노래로 마무리된다.

<춘희>는 모두 4종의 음반극으로 발매되었으며, 이들 음반 모두 가사 지나 음원이 남아 있다. 우선 ‘영화극’ <춘희>는 아르망이 병든 춘희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는 장면과, 그러나 아르망 아버지가 춘희를 찾아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 춘희가 변심한 척 아르망을 떠나보내고 결국은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극예술연구회의 <춘희>는 병든 춘희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이후 뒤늦게 아버지의 개입 사실은 안 아르망이 죽어가는 춘희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르망의 품에서 춘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비극’ <춘희>는 아르망의 아버지가 찾아서 춘희를 설득하는 장면을 음반화 하였으며, ‘극’ <춘희>는 이경설의 사후(死後) 영면유작 발매음반으로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춘희가 아르망(극중에서는 영철)을 모질게 끊어내고 혼자 남아 흐느끼는 장면과 결국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미제라블>은 4종의 음반극으로 발매되었으며, 그 외에도 2종의 ‘영화설명’으로 음반화되었다. 아쉽게도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영화설명 음반의 가사지와 음원뿐이지만, 나머지 두 음반의 내용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장발장이 미리엘 대주교로 인해 감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영화설명’ <희무정>도 장발장이 오갈 데 없는 전과자인 자신을 하룻밤 재워준 밀리엘 대주교의 집에서 결국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헌병에 붙잡히는 장면, 그러나 밀이엘 대주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헌병에 붙들린 채 자신을 찾아온 장발장에게 오히려 은춧대까지 주며 올바르게 살 것을 당부하자 장발장이 크게 감화를 받고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영화설명’ <설명레뷰>에서도 감화를 받은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와의 대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서구고전 음반극 10편 중 7편이 극예술연구회에 의해 녹음되었다. 극예술연구회는 1934년 5월에 일본 콜럼비아 축음기회사에서 총 11편의 작품, 즉 번역극 7편과 창작극 4편을 녹음하였다.¹⁸⁾ 이 때 번역극이 창작극

18) 『극예술』 2호에 실린 「극예술연구회 제1회 취입 명작 레코드 드라마 기록」에 의하면, 당시 창작극은 모두 4편, 즉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Columbia40620), <토

보다 더 많았던 까닭은 극예술연구회와 음반회사의 교섭 자체가 “세계 명작극본 취입”에 관한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극예술연구회는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부활>과 <춘희>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베니스의 상인>, 입센의 대표작인 <입센의 가(家)>, 실러의 <빌헬름 텔>, 그리고 러시아의 사실주의 극작가 오스트롭스키의 <폭풍우>를 녹음하였다. 이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과 <부활>, <춘희>, <인형의 집>은 창작극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과 함께 JDOK에서 라디오극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 외에 <카르멘>은 비제의 오페라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가사지와 음원 모두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장면이 음반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데아부로>의 제목은 ‘악마’ 또는 ‘마왕’이란 뜻의 스페인어인 ‘diablo’로서 서구고전 음반극 중 유일하게 원작을 확인할 수 없는 작품이다. 하지만 <데아부로> 자체는 당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었으며, 특히 챙 달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 망토를 두른 주인공은 제법 유명했던 인물로 보인다. 동명(同名)의 가극 작품이 1926년 6월 26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무도(武道) 대회의 여흥으로 공연되었는데, 이 때 출연했던 이백수와 복혜숙은 음반 녹음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데아부로>는 1928년에 토월회에 의해서, 1929년에 김소랑일행에 의해서도 공연된 바 있다.

막>(Columbia40690), <동방의 비가>(Columbia40522), <사랑의 힘>이 녹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 <사랑의 힘>은 그 음원정보가 확인되고 있지 않아 그 발매 여부는 불확실하다.

<표-3> 서구고전극 음반: 총10편 · 17종

연번 편수	음반번호	표제	제목	저자	취입	발매일	가사지	음원	
1	1 Columbia 40019 40020	영화극	부활(카츄사)	톨스토이 원작	이경손 복혜숙· 설명 김조성	1929.4	○	◎	
	2 Columbia 40604 40608	극	부활	함대훈 각색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김영옥 김창기· 김일영	1935.8	○	◎	
	3 Polydor19091	극	지나간 그날 ¹⁹⁾ (영화 '아리랑'에서)	왕평 안	왕평 신일선· 박제행	1933.10	○		
	4 Polydor 19335 19346	극	그여자의 일생 '카츄사' 레코드 극화		전옥 왕수복· 해설 김용환	1936.8 1936.10	○ 19335		
		Polydor X549 550 (재발매)	극	그여자의 일생 '카츄사' 레코드 극화		전옥 왕평· 왕수복 김용환	1939.5		
		RegalC223	스케치	카츄사의 하소		도부·이리안	1934.10	○	◎
	RegalC159	영화 설명	설명레뷰(하) 중 부활		김영환 해설	1934.7	○	◎	
2	1 Columbia 40110 40111	영화극	춘희		김영환 복혜숙	1930.7		◎	
	2 Columbia 40715 40724	극	춘희	이현구 번안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김복진 김창기· 홍정숙	1934.12	○	◎	
	3 RegalC460	비극	춘희	김다인 작	지경순 박세명	1939.1	○	◎	
	4 Polydor19159	극	춘희	이용호 안	이경설·왕평· 해설 신은봉	1934.9	○		
		PolydorX575 (재발매)	극	춘희	이용호 안	이경설·왕평· 해설 신은봉	1939.8		
	RegalC159	영화설명	설명레뷰(하) 중 춘희		김영환 해설	1934.7	○	◎	
3	1 Polydor 19097	극	밀이엘승정		박제행·왕평· 신일선	1933.11			
	2 KirinC 168 169	서양극	짚발잔		김포연 강석우· 탄월	1934.3			
		Victor49016	영화설명	희무정		김영환 해설	1928.12	○	
		RegalC159	영화 설명	설명레뷰(상) 중 희무정		김영환 해설	1934.7	○	◎

4	1	제비표 조선레코드 B140	극	카르멘		이월화 안종화	1927		
5	1	일축조선 소리판 K848	연극	데아부로		이백수 석금성 외	1932.1		
6	1	Columbia 40537	극	로미오와 주리엘	웁스피어 김광섭 역안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김창기 김영옥	1934.9	○	◎
7	1	Columbia 40577	극	인형의 가	헨릭입센 박용철 역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김복진 이용	1935.8	○	◎
8	1	Columbia 40598	극	베니스의 상인	웁스피어 김광섭 역안	극예술연구회 신태선· 최봉직· 김복진·이용· 김처을	1934.9	○	◎
9	1	Columbia 40664	극	폭풍우	오스트 롭스키 함대훈 개작	극예술연구회 김영옥 김창기	1936	○	◎
10	1	Columbia 40740	극	월헬름, 텔	서향석 번안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윤정섭·이용· 김일영 홍정숙	1938.1	○	◎

3. 창작극 음반

: 사랑/이별과 실향/망향, 현실/역사의 대중서사와 그 교섭

창작극 음반은 모두 167종에 그 작품의 수가 모두 161편에 달할 정도로 음반극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사지와 음원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35종이고, 가사지만 확인되는 것은 20종, 음원만 남아있는 것은 32종이다. 그리고 이 중 역사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낙화암>, <낙랑공주와 마의태자>, <항우와 우미인>, <망사암비화>, <신라의 달>, <단종 애사후일담> 등 모두 6편이고, 이미 잘 알려진 소설을 음반극화 한 문예극은 이광수 원작의 <개척자> 및 <사랑>과, 역시 이광수 원작으로 추정되는 <무정>과 <유정> 등 모두 4편이다. 따라서 창작 음반극 중 역사(소재)극과 문예극 10편을 제외한 151편 정도가 일반 대중극 음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극 음반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모티프는 역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었으며, 그 안에서 사랑과 이별, 배신과 죽음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었다. 예컨대 <무엇이 숙자를 죽였나>(RegalC280)²⁰⁾에서 숙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문벌을 중시하는 부모의 중용으로 인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하지만 사랑했던 남자가 찾아와 숙자를 저주하며 정조를 유린하려고 하자, 숙자는 자살한다. <사의 승리>(RegalC467)에서 희숙은 자신의 약혼자인 최춘과 애리스의 사랑이 진실된 것임을 깨닫고, 둘의 사랑을 완성시켜주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한편 <사랑은 속아도 사랑>(RegalC453)에서 결혼을 앞둔 희준과 영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하지만 희준은 우연히 영채의 집안이 갑작스럽게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과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영채가 어느 재벌집의 첩으로 들

19) 이 음반은 극중극적인 형식으로 인해 창작 음반극 목록에도 포함되었다.

20) <표4>에 속하는 작품의 수가 많아 창작 음반극에 한해 본문 중 제목 옆에 음반번호를 병기하도록 한다.

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채의 집안을 위하는 것이 곧 영채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영채를 기꺼이 포기한다. 하지만 5년 후 희준은 요코하마 화류촌에서 매춘부가 된 영채와 조우하고, 과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다.

영화와 그 주제가로 잘 알려진 <낙화유수>(Victor49017)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춘홍은 아기를 안고 아이의 아빠인 성원을 만나기 위해 상경하지만, 성원은 도리어 춘홍과 강호정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녀를 버린다. 이에 춘홍은 실성해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성원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강물에 뛰어 들고 만다. 춘홍의 오빠 도영이 춘홍을 서둘러 구하지만 춘홍은 결국 죽고,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때마침 돌아온 성원이 사죄하며 춘홍의 죽음을 지킨다. <낙화유수>는 1927년, 즉 음반화되기 일 년 전에 김영환 각본, 이구영 감독의 무성영화로 제작되었었는데, 당시 유명 변사로 활동하던 김영환이 자신의 삶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주제가 <낙화유수>도 크게 유행되면서 1929년 4월에 음반화 되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의 음반극에서 보여지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기생 또는 카페여급 여주인공이다. <한만흔 신세>(RegalC214)에서 기생 옥란은 창호를 공부시키고 그의 아이까지 낳아 기르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창호의 비난을 받으며 아이까지 빼앗기게 된다. <마즈막 편지>(RegalC242)에서 계월은 사랑하는 시춘을 동경유학 보내고 자신의 사랑하는 의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부자인 진가(家)의 첩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못 견디어 진가를 독살한 후 자살하고 만다. <못잇을 설음>(RegalC276)에서도 남수는 카페여급 정숙을 사랑하였지만, 아버지가 경영하는 광산이 어려움에 처하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유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한다. <눈물저즌 자장가>(RegalC281)에서도 기생이나 카페여급으로 추정되는 여주인공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한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눈물의 자장가를 불러준다.

기생 및 카페여급 여주인공의 사랑과 이별을 담은 음반극 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는 무대극으로도 유명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임선규 작)이다. 이 작품은 1936년 7월 동양극장의 전속극단인 청춘좌에서 공연하여 큰 인기를 얻은 후 동양극장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39년에는 이명우 감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당시 차홍녀와 심영, 황철, 변기중 등이 출연-, 같은 해 3월에는 주제가인 <홍도야 우지마라>가 음반으로 발매되기도 했다. 음반극이 녹음 발매된 것은 바로 그 해 10월이었으며, 녹음에는 영화에 출연했던 황철과 차홍녀 등이 참여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기생이 된 홍도는, 오빠의 친구 영호와 사랑, 결혼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와 간계로 홍도는 결국 시집에서 쫓겨나가고, 영호의 또 다른 정혼자까지 칼로 찢러죽이고 만다. 주제가 <홍도야 우지 마라>는 홍도가 공부시켜 경찰이 된 오빠가 살인의 죄를 저지른 누이의 손에 직접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로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저승에 맺는 사랑>(Columbia40498)은 어느 카페 여급의 자살 사건이라는 실화를 음반극으로 만든 것이었다. 1933년 9월 말경 김봉자와 노병운의 정사(情死) 사건은 모든 일간지를 연이어 장식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당시 엔젤 카페의 여급으로 있던 김봉자가 의학사(醫學士)이자 유부남이었던 노병운과의 사랑에 비관하고 한강에 투신자살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노병운 역시 한강에 투신자살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김봉자의 공산당 스파이설이 대서특필되면서 사건은 더욱더 흥미진진해졌다. 각 일간지에서는 조건과 석간을 앞다투어 김봉자와 노병운의 삶, 김봉자에게 온 편지들, 김봉자 지인들의 인터뷰 등등을 기사화 하면서 선정적인 추측성 기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음반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했다. 사건이 있었던 1933년 9월 직후, 즉 같은 해 12월에는 유행가 <봉자의 노래>(Columbia40488)가, 다

음 해 2월에는 <병운의 노래>(Columbia40490)가 발매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에 정사애화 <저승에 맺는 사랑>이, 그리고 7월에 ‘영화설명’ <봉자의 죽음>(RegalC192)이 각각 발매되었다. <저승에 맺는 사랑>은 죽음을 앞둔 봉자와 병운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자의 죽음>은 두 남 녀가 죽기 직전의 상황을 연극적으로 구성, 해설한 것이었다.

<항구의 일야> 시리즈는 음반극으로 제작되어 공전의 히트를 치며 이후 영화화까지 된 작품이다. 우선 첫 편인 <항구의 일야>(Polydor19062)는 이역(異域)의 어느 항구를 배경으로 이별하는 이철과 탄심을 그린 것이었다. 술집 작부인 탄심은 사랑하는 이철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침에 이철의 잠든 얼굴을 바라만 볼 뿐 차마 깨우지 못한다. 오늘은 이철이 삼사년간의 공부를 마침내 끝내고 부모님과 정혼자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철은 잠깐 고향에 다녀오는 것뿐이라고 위로하지만, 탄심은 피맺힌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노래한다. 당대에 ‘눈물의 여왕’이라 불리던 전옥이 흐느끼는 탄심을 맡아 열연하여 더욱 유명해진 작품이었다.

<항구의 일야(추억 편)>(Polydor19209)에서 이철에 대한 탄심의 사무친 그리움은 그만 병이 되었다. 하지만 이철을 기다리는 탄심에게 돌아온 것은 정작 신문에 실린 이철의 결혼 소식뿐이었으며, 탄심은 또 다시 피맺힌 눈물을 흘리며 추억을 노래한다. 마지막 <눈물의 추억(항구의 일야 최종 편)>(Polydor19283)에서 탄심은 그 옛날 이철과 정답게 부르던 노래인 <눈물의 추억>을 부르기 위해 라디오방송에 출연한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통해 탄심의 방송 사실을 알게 된 이철은 하루 전날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탄심은 이철의 권유를 뿌리치고 갱생의 의지를 다진다. 이후 네 번째 음반으로서 <항구일야의 후일담>(Polydor19427)까지 발매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4종의 음반은 큰 인기를 얻어 이후 같은 음반회사에서 모음집으로 재발매되었으며, 1956년에는 전옥과 최무룡 주연, 김화랑 감

독의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1957년에는 전옥과 남성우 주연으로 다시 음반화되어 해방 후까지 그 인기를 꾸준히 이어갔다.

빈곤으로 인해 기생이나 첩이 되는 딸이나 개과 후 현모양처가 되는 기생 역시 기생 여주인공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말 못할 사정>(Columbia 40205·40206)에서 정희는 폐병에 걸린 자신의 약값과 취업하지 못한 오빠를 대신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희의 오빠는 그녀를 죽이고 순사에게 자수한다. <정희의 오빠>(Columbia40640)에서도 영숙²¹⁾은 오빠의 학비를 위해 매춘을 하고, 그 사실을 안 오빠는 결국 학업을 그만 두기로 결심한다. 유사하게 <설어운 일요일>(Polydor 19387)에서 영순은 가난한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희영과 이별하고 부잣집 첩으로 들어간다.

이서구의 <어머니의 힘>에서 명문가의 아들이자 화가인 명규는 완고한 아버지 은직과의 의절을 무릅쓰고 기생 정옥과 결혼하지만 결국 아들 하나를 남긴 채 죽고 만다. 이후 정옥은 샴바느질을 하며 아들 영구를 바르게 키우는 데 전념하지만, 은직이 찾아와 영구를 요구하며 집안의 상속자가로 삼겠다고 말한다. 정옥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생이별을 결심하지만, 결국 정옥의 모성과 영구의 효심에 감동한 은직은 정옥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어머니의 힘>이 극단 호화선에 의해 동양극장에서 초연된 것은 1937년이었으며, 음반화된 것은 1939년 11월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앞선 1935년 2월과 4월에 발매된 <모성에>(RegalC264·271)에 <어머니의 힘>과 유사한 인물들과 서사가 발견된다. <모성에>에서 어머니는 기생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 수동을 효심 깊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힘

21) 흥미롭게도 여주인공의 이름은 제목과 달리 영숙이다. 그리고 이는 대중서사의 여주인공이 고유하고 개성적인 유일무이의 특정인물이 아니라, ‘영숙’과 ‘정희’, ‘순애’, ‘탄심’ 등으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녀’임을 보여준다.

껏 키워낸다. 그리고 집안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수동을 데려가려던 시 아버지는 수동의 효심과 며느리의 모성에 감동하여 결국 며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빈곤과 망국으로 인한 실향과 망향 역시 음반극뿐만 아니라 무대극, 영화, 가요 등에서 반복되었던 인기 있는 모티프였다. <아리랑고개> (Columbia40251)에서 길남이는 어린 아들 길남을 데리고 아리랑고개를 넘어 정든 고향을 떠난다. <망향비곡>(Polydor19189)은 제목 그대로 고향 떠난 이들의 슬픔에 대한 작품이다. 극중 남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이역 땅에서 밤낮을 술로 지새우다 결국 병으로 죽고, 아내는 남편의 시체를 안고 울부짖는다. <국경의 밤주막>(Okch1866)에서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주막에서 스킨트 조우하는 남녀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의 설움 및 외로움을 서로에게 달래 본다. 그리고 <상해야화>(RegalC352)에서는 머나먼 상해의 화류계에 몸담고 있는 여자가 아편 중독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그리운 고향에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 1931년에서 1932년 사이에 『문예월간』에 게재, 1933년 2월 극예술연구회에 의해 공연된 유치진의 <토막-쌍보 일가의 이향> 역시 당시 창작 음반극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던 실향과 망향이라는 대중적 모티프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표-4> 창작극 음반: 총161편 · 167종 (여기서는 종수를 누적표기하였다.)

연번	음반번호	표제	제목	저자	취입	발매일	가사	음원
1	1	일촉조선 소리판 K808	동요극	숨박잡기	아동예술연구회	1929.10		
	2	RegalC143	동요극	숨박잡기		1934.7	○	◎
2	3	일촉조선 소리판 K849	영화극	약혼	김영환·복혜숙	1932.1		
3	4	일촉조선	영화극	중소래	김영환 윤혁·	1932.1		

		소리판 K858					이애리수		
	5	RegalC138 (재발매)	영화극	중소래			김영환 윤혁· 이애리수	1934.6	○ ◎
4	6	Columbia 40163	영화극	개척자	이광수 작		이애리수·윤혁· 해설 김영환	1931.3	○ ◎
5	7	Columbia 40205·40206	극	말못할 사정			나운규 석금성· 섭영	1931.6	◎
6	8	Columbia 40251	극	아리랑고개			이백수·석금성	1931.10	◎
7	9	Columbia 40266	희가극	레코드카페			김영환·강석연· 김선초·채규엽	1931.11	○ ◎
8	10	Columbia 40272	가극	우리집	김서정 작		김영환·강석연· 김선초	1931.12	
9	11	Columbia 40311	극	이팔청춘	홍토무 작		태양극장 심영 박제행· 김선영	1932.5	◎
10	12	Columbia 40329	만극	불행한 시인			심영 박제행· 김선영	1932.7	◎
11	13	Columbia 40334	극	인도의 밤	이복월 작		심영 박제행· 김선영	1932.8	◎
12	14	Columbia 40336	희극	미인 포스타			예술좌원(員)	1932.8	◎
13	15	Columbia 40402·40403	아동비극	종수의 설움			김영환·김선초· 이월파	1933.3	◎
14	16	Columbia 40419	아동비극	무엇이 수남을 그렇게 했나			심영·박제행· 김선영	1933.4	◎
15	17	Columbia 40464	아동비극	순동이의 효성			심영·김성운· 김선초·김선영	1933.9	○ ◎
16	18	Columbia 40478	아동비화	애곡	외국 작 남궁춘 안		심영·김성운· 김선초·김선영	1934.1	○ ◎
17	19	Columbia 40487	희류애화	처량한 밤	홍토무 안		심영 김성운· 김선초·김선영	1934.1	○ ◎
18	20	Columbia 40498	정사애화	저승에 맺는 사랑	남궁춘 작		석금성·김성운	1934.2	○ ◎
19	21	Columbia 40504	가정비극	별빛는 어머니	남궁춘 안		석금성·김성운	1934.3	○ ◎
20	22	Columbia 40522	극	동방의 비가	김창기 안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이용 김복진· 윤정섭·김창기	1934.7	○ ◎

21	23	Columbia 40620	극	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유치진 작 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윤정섭·이용· 김복진·조정해	1935.6	○	◎
22	24	Columbia 40633	극	장탄야곡	김병철 작	전옥 강홍식	1935.8	○	
23	25	Columbia 40640	극	정희의 오빠	김병철 작	전옥 강홍식	1935.9	○	◎
24	26	Columbia 40690	극	토막·뺑보 일가의 이향	유치진 작	극예술연구회 이용 윤정섭· 김영옥·김복진	1936.8	○	◎
25	27	Columbia C2001·C2002	비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서구 각색	청춘좌 황철 차홍녀· 한일송 김선초· 이동호	1969.10	○	◎ C200 2
	28	Polydor 19414·19440	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문예봉 왕평· 독은린·전옥· (이)백수	1937.5 1937.9		
	29	Polydor X555 556	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문예봉· 왕평 독은린	1939.5		
26	30	Columbia C2003·C2004	모성극	어머니의 힘		지경순 김소조· 박영신	1939.11		◎
27	31	RegalC214	애화	한만흔 신세		도무 이리안· 김덕희·김성운	1934.9	○	◎
28	32	RegalC242	극	마지막 편지	홍도무 작	도무 이리안	1934.12	○	◎
29	33	RegalC259	아동비극	울지않는 종		심영·김성운· 김덕희·김선영	1935.2	○	◎
30	34	RegalC 264 271	극	모성에	김병철 안	도무 신경녀· 석정의	1935.2	○	◎
31	35	RegalC276	극	못잊을 설음	김병철 작	도무 신경녀· 석정의	1935.5	○	◎
32	36	RegalC280	극	무엇이 숙자를 죽였나	남궁춘 작	도무 이리안	1935.6	○	◎
33	37	RegalC281	극	눈물저즌 자장가	남궁춘 작	도무 이리안	1935.7	○	◎
34	38	RegalC346	아동비화	눈물의 노래	남궁춘 작	김선초·김성운· 이리안	1936.8	○	◎
35	39	RegalC352	극	상해야화	윤기항 작	도무 이리안	1936.8	○	◎
36	40	RegalC367	극	순사와 산부	김상준 작	도무 이리안	1936.11	○	◎

37	41	RegalC373	극	누구의 죄		도무 이리안	1936.11	○	◎
38	42	RegalC453	화류비극	사랑은속아도 사랑	김다인 작	박세명·지경순	1938.1	○	◎
39	43	RegalC466	비극	유랑남매	문예부 편	강석연 도무	1939.4	○	◎
40	44	RegalC467	비극	사의 승리	김다인 작	박세명·지경순	1939.5	○	◎
41	45	Victor49017	영화극	낙화유수	김영환 작	김영환·복혜숙· 유경이·	1928.12	○	○
42	46	Victor49114	촌극	무엇이그들을 울니었나	윤백남 작	윤혁 박월정· 윤백남	1935.2	○	
43	47	Victor49398	극	피에 어린 사제애	이현경 작	서일성·신은봉	1935.11		
44	48	Victor KJ-1048	극	호반의 애가	이고범 작	서일성·신은봉	1935.11		○
45	49	Victor KJ-1059	극	비련		서일성·신은봉	1935.11	내용	○
46	50	Victor KJ-1110	극	팔자업는 출세		동양극장 제공 황철 심영· 지경순·김선초	1937.4	○	◎
47	51	Victor KJ-3001	아동극	애라의 하루		신흥동인회	1937.4		○
48	52	Victor KJ-3003	아동극	개구리유치원		신흥동인회	1937.4		○
49	53	Victor KJ-3006	아동극	뒤틀목행진곡		신흥동인회	1937.4		○
50	54	Victor KJ-3007	아동극	나의 생일		신흥동인회	1937.5		○
51	55	Victor KJ-3010	아동극	홍부와 제비		신흥동인회	1937.11 22)		○
52	56	Victor KJ-3011	아동극	봄이 왔다		신흥동인회	1937.4		○
53	57	Victor KJ-3013	아동극	콩쥐와 팥쥐		신흥동인회	1938.8		○
54	58	Chieron11	만극	사랑의 불길		임서방·전수린· 신카나리아	1932.6		
55	59	Chieron 18 19	극	환락의 이면		임서방·신카나 리아 강금자	1932.6		
56	60	Chieron43	극	항구의 에레지		서월영·김연실	1932.8		
57	61	Chieron79	폭소극	입살마진 대머리	신불출 편	신불출·김연실	1932.12	○	

58			풍자희극	여천하		신불출·신은봉·이춘풍			
59	62	Chieron97	극	방아타령		이춘풍 신불출·신은봉	1933.5		
60	63	Chieron112	극	파계	이고별 작	이경환·김연실	1933.7	내용	
61	64	Chieron137	극	단장애곡	이고별 작사 김서정 작곡	김영환 남궁선·전입분·남궁춘	1933.11		○
62	65	Chieron154	극	애련비련		김영환 남궁선·김연실	1934.1		
63	66	Chieron159	극	그리운자장가		김영환 최향화·김연실 전입분·남궁선	1934.2		
64	67	Chieron168	극	그날밤애화		김영환 전입분·남궁선·남궁춘	1934.3		
65	68	Chieron174	극 모성비극	어머님무덤에	이고별 작사 김서정 작곡	김영환 남궁선·김선영	1934.4		
66	69	Chieron175	극	월화의 상해행	이고별 작	김영환	1934.5		
67	70	Chieron187	극	황국백국	이고별 작사 김서정 작곡	남궁선 김선영·김영환·이화춘	1934.6		
68	71	Chieron205	극	거룩한 새벽		남궁선 김선영·심영 김양자	1934.9		
69	72	Chieron219	극	동백꽃	이고별 작사	심영 남궁선·이춘풍·김선영	1934.11		○
70	73	Chieron 504(특)	극	신가정생활		김연실·서월영	1932.7		
71	74	Chieron임01	극	거리의 성모		차홍녀	1936.12		
72	75	Okeh1543	극	낙화암		신불출	1933.7	○	◎
73	76	Okeh1609	극	푼어진 아리랑 (불출 편)		신일선 성광현·이난영·신불출	1933.12		○
74	77	Okeh1610	극	부부암애화		신불출 나품심·성광현	1933.12	○	
75	78	Okeh 1614 1615	비사극	나랑공주와 마의태자	김능인 편	신일선 신불출·성광현 김창배·	1934.1	○	◎ 1614

									유성준			
76	79	Okeh1616	폭소극	영터리	성광현 편	성광현·나품심·신불출	1934.1	○				
77	80	Okeh1635	아동극	짜짜이신발 옥수수하모니카		신불출	1934.2					
78												
79	81	Okeh1676	비극	무정세월		김진문·신일선	1934.5					
80	82	Okeh1678	비극	강촌은 요란하다		신불출 성광현·나품심	1934.6					
81	83	Okeh1700	애화	빙산의 비밀		신불출·신일선	1934.8					
82	84	Okeh1709	민요극	울고갈 길 왜 왔나		신불출·신일선·성광현·나품심						
83	85	Okeh1720	비극 실화극	수재	김능인 편	신불출 신은봉·김효산·차홍녀	1934.11					
84	86	Okeh1746	가정비극	아들눈물잇소		신불출·차홍녀	1935.1					
85	87	Okeh1758	차사극	항우와 우미인	김능인 편	신불출·차홍녀·김효산·해설 손길	1935.2	○				
86	88	Okeh1766	청루비극	화류장한		신불출 신은봉·차홍녀	1935.3					
87	89	Okeh1778	전설극	망사암비화		신불출 신은봉·김효산·차홍녀	1935.5					
88	90	Okeh1833	가정비극	죄		김진문·남궁선	1935.11					
89	91	Okeh1866	비극·비사극	국경의 밤주막	김능인 작	김진문·남궁선	1936.2			◎		
90	92	Okeh1910	사극	신라의 달	박영호 작	박세오·나품심	1936.7					
91	93	Okeh1911	시극	눈물의 출범	박영호 작	박세오·나품심	1936.7					
92	94	Okeh1916	법정비극	어머니의 비밀	박영호 작	박세오·나품심	1936.8	내용				
93	95	Okeh1969	영화극	오몽녀		나운규 노재신·윤봉춘·박세명	1937.3	내용				
94	96	Okeh1973	화류비극	피무든 처녀설		박세오·나품심	1937.3					
95	97	Okeh1978	연예비극	문허진 상하담		박창환·지최순	1937.4					
96	98	Okeh1992	순정비극	상사십년		박창환·지최순	1937.5					
97	99	Okeh12045	극	운명의 거미줄		나품심 세명·○정	1937.5					
98	100	Okeh 20107	가요극	역마차		이백수·유계선	1941.10					

		~20109							
99	101	Okch 20119 ~20122	가요극	남매	조명암 작	한일송·유계선· 해설 박창원	1942.6		○
100	102	Okch 31140 ~31143	가요극	어머님전상백		유계선 박창환· 이백수	1943.2		
101	103	Okch 31168 ~31171	가요극	모자상봉		유계선 복혜숙· 이백수	1943.2		
102	104	Polydor 19018 (임)	극	국경의 애곡	왕평	이경설·김용환	1932.9		
	105	Polydor19029	극	국경의 애곡	왕평	이경설·김용환	1933.1	○	
103	106	Polydor19030	극	총각과 처녀	왕평	이경설·김용환	1933.1		○
104	107	Polydor19046	스케치	도회의 밤거리	왕평 안	왕평 이경설· 김용환		○	◎
105	108	Polydor19056	극	침묵		강홍식 전옥	1933.4		
106	109	Polydor19062	극	항구의 일야	이응호 안	왕평·전옥	1933.4	○	○
107	110	Polydor19066	가요극	효녀의 살인		강홍식 전옥· 지계순	1933.5		
108	111	Polydor19069	극	안해의무덤을 안고	이응호 안	왕평 전옥· 지계순	1933.7	○	
109	112	Polydor19078	극	눈나리는밤	왕평 안	강홍식 전옥· 지계순	1933.8	내용	○
110	113	Polydor19091	극	지나간그날 ²³⁾ (영화 '아리랑'에서)	왕평 안	왕평 신일선· 박재행	1933.10	○	
111	114	Polydor 19105 19106	극	심화		왕평 박재행· 나품심	1933.12	○ 1910 5	
112	115	Polydor19113	극	자장가		왕평 박재행· 신일선·나품심	1934.1		
113	116	Polydor19120	극	낙화장한	이응호 안	왕평 나품심	1934.2		
114	117	Polydor19126	극	남매		왕평 박재행 나품심	1934.○		
115	118	Polydor19140	극	울고웃는인생	이응호 작	왕평 이경설	1934.5	○	
116	119	Polydor19189	극	망향비곡	이경설 작	심영·왕평	1935.3	○	○

117	120	Polydor19209	극	항구의 일야 (추억 편)	이응호 작	전옥·왕평	1935.7	○	
118	121	Polydor19283	극	눈물의 추억 (항구의 일야 최종 편)	이응호 작	전옥·왕평	1936.1	○	
119	122	Polydor19287	극	명우의 애화 (고(故)이경설 의 추억담)	이응호 안	전옥·왕평	1936.2	○	
120	123	Polydor19387	극	설어운 일요일	왕평 작	전옥 이응호· 왕평 윤건영	1937.1	○	
	124	PolydorX54 0	극	설어운 일요일	왕평 작	전옥 이응호· 왕평 윤건영	1939.3		
121	125	Polydor 19396	가요극	항구의 이별 ²⁴⁾		전옥·왕평	1937.2	○	
122	126	Polydor19702	가요극	형매		정옥·왕평	1937.3	○	
123	127	Polydor19408	극	이역의 애화	이운방 작	전옥·왕평	1937.4	○	
124	128	Polydor19420	비련애화 화류애화	황포강변의 추억		전옥 왕평· 윤건영	1937.6		
	129	PolydorX585	극	황포강변의 추억		전옥·왕평	1939.8		
125	130	Polydor19427	승방애화	항구일야의 후일담		전옥 왕평· 윤건영	1937.7		
	131	Polydor X520 ~X523	극	항구의 일야 ²⁵⁾	이응호 작	전옥·왕평	1939.1		○
126	132	Polydor19433	걸작집	상사초		전옥·왕평	1937.8		
127	133	Polydor19457	비화	황포강변의 고별	○암 작	전옥·왕평			◎
	134	PolydorX586	극	황포강변의 고별		전옥·왕평	1939.8		
128	135	PolydorX561	극	고향소식		왕평 신은봉	1939.6		
129	136	PolydorX589	극	여자의 길	이응호 작	왕평 신은봉	1939.9		
130	137	PolydorX656	극	압방뒤틀방		왕평 지경순· 현정남·이영란	1940.2		
131	138	PolydorX660	극	어머니		이영란 지경순· 왕평·노래 현정남	1940.3		
132	139	Taihei 5055~5058	연극	동백꽃피는 마을	임선규 원작 박향민	진옥 박창환· 김양춘·박세명	1943.2		

					각색				
133	140	Taihei 5063~5065	연극	사랑	이광수 작	전옥 박창환·김양춘·세명생	1943.2		
134	141	Taihei8025	향토극	처녀와 총각		성광현·윤백단	1932.11	○	
135	142	Taihei8044	향토극	방앗간처녀		성광현·나품심	1933.6	○	
136	143	Taihei8045	비극	환희		김소랑 한과영·한도리티아	1933.6		
137	144	Taihei8048	풍자극	카페풍경		김과영·한도리티아	1933.6		
138			비극	주태의 눈물					
139	145	Taihei8086	비극	여급		김포연 탄월	1934.2		◎
140	146	Taihei 8105 8106	사극	단중애사 후일담	박영호 작	박영호·심정화	1934.9		◎
141	147	Taihei8113	극 화류애화	거리의 공작		박세명·한정희	1934.10		
142	148	Taihei8125	극	꽃업는 백년		박세명·심정화	1934.12		
143	149	Taihei8130	극	사랑의 혈계 (이상산 실화)		신은봉 박세명·이우홍	1935.4		
144	150	Taihei8134	시극	정한의 밤차	이품향 작	신은봉·박세명	1935.4		
145	151	Taihei8136	극	배사락이	박영호 작	신은봉 박세명·이우홍	1935.5		○
146	152	Taihei8165	극	시들은방초	이품향 작	신은봉·박세명	1935.10		
147	153	Taihei8330	시극	정한의 밤차 후편	이품향 작	신은봉·박세명	1937		◎
148	154	Taihei8335	극	화류애사		신은봉·박세명	1937.11		
149	155	Taihei8664	극	정한의 밤차 속편	임서방 작사 전기현 작곡				○
150	156	KirinC186	향토극	아리랑고개		김진문 한지석·강석향	1934.7		
151	157	KirinC193	극	그늘진 인생		태양극장	1934.11		
152	158	KirinC205	향토극	삼봉과 옥봉이		김진문·한지석	1935.1		
153	159	KirinC 208·209	만극	벽창호와 명탕구리		김포연·강석연·탄월	1935.1		
154	160	DeerD-임05	극	괴상한 삼각		임서방·신카나리아·민근	1931.11		
155	161	DeerD-임07	극	도적마즌 키스		임서방·신카나리아·민근	1931.11		

156	162	DeerD-임13	극	도회광상곡		임서방·신카나리아	1931.11		
157	163	NewKorea 1033(임)	극	무정	이광수 작(?)	최선 박고송	1936.8		
158	164	NewKorea 입05	비극	기생 강명화		최선 박고송	1936.4		
159	165	NewKorea 입09	극	유정	이광수 작(?)	박고송	1936.5		
160	166	NewKorea 입11	모성극	조선의 어머니		최선 박고송	1936.5		◎
161	167	Korai1064	극(?)	짓밟힌 모성		박혜숙 외	1938.9		

4. 나가며: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지형

유성기 음반극은 당시 대중극과 대중서사, 그리고 대중문화의 표본이었다. 음반극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의 상품으로서 기획 제작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잘 팔릴 만한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기 있는 소재들이나 등장인물들, 대중서사들은 음반극뿐만 아니라 무대극과 영화, 소설, 가요 등에서 널리 조금씩 유사한 듯 다르게 변용적으로 차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기존의 무대극 및 영화배우들과 무성영화 변사, 가수들이 녹음에 적극 참여하였다.

- 22) 이때의 발매일은 유성기 음반아카이브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인데, 앞뒤 음반의 발매일을 고려할 때 착오가 있어보인다.
- 23) 전술했듯이 이 작품은 극중극적 형식으로 인해 <표-3>의 서구고전 음반극 목록에도 포함되었다.
- 24) <항구의 이별>은 <항구의 일야> 시리즈를 새롭게 가요극 형식으로 묶은 것이므로 작품 수에 포함시킨다.
- 25) <항구의 일야>(PolydorX520~523)는 <항구의 일야>(Polydor19062)와 <항구의 일야(추억편)>(Polydor19209)와 <눈물의 추억(항구의 일야 최종편)>(Polydor19283), <항구일야의 후일담>(Polydor19427)의 재발매 모음집이므로 작품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구의 일야> 시리즈는 첫 번째 작품 <항구의 일야>가 크게 히트하면서 후편과 속편의 형식으로 추후 시간차를 두고 발매된 것이라 하나의 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유성기 음반극에서 ‘고전’ 레퍼토리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춘향전>과 <심청전> 등과 같은 고전소설(또는 판소리)과 <장한몽>과 <불여귀>와 같은 고전신화극, <부활>과 <장발장> 등과 같은 서구고전 등은 실제로 여러 음반 회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작·발매되었다. 하지만 유성기 음반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창작 음반극이었다. 창작 음반극에 있어서 특히 당시의 대중극과 대중서사가 적극적으로 교섭했던 양상은 매우 흥미롭다. 30년대의 대표적인 대중극인 임선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에서 기생 여주인공의 사랑이 결국 배신당하는 서사, 이서구의 <어머니의 힘>에서 한때 기생이었으나 개과(改過)한 후 진정한 현모양처로 거듭나는 서사, 그리고 유치진의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과 <토막쟁보 일가의 이향>에서 빈곤으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고 딸자식을 권번에 파는 서사 등은 그 자체가 전적으로 작가에 고유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 작품이 쓰여지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음반극들이 다수 발매,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의의는 오히려 내용의 고유성이나 새로움보다, 당시의 대중극과 대중서사를 극작법적으로 완성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음반극 연구는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극작가와 배우, 가수 등에 대한 새로운 지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음반극 안에서 작사가와 극작가, 배우, 가수의 영역과 경계는 다소 유동적이었고, 이들의 활동은 영역과 경계를 넘나들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음반극의 제작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이서구(이고법)와 박영호, 박진(남궁춘), 송영 등과 같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조명암(김다인)과 김능인, 이응호(왕평), 김진문 등과 같은 작가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중 조명암과 김능인, 이응호, 김진문, 홍토무(홍개명) 등은 작사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김병철과 김향, 김원호 등 다소 이름이 낯선 작가들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나아가 일부 작가/작사가들은 배우로서 음반극 녹음에 참여하기도 했

다. 대표적인 예로 이응호(왕평)은 자신이 직접 쓰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항구의 일야>, <항구의 일야>(추억 편), <눈물의 추억>(항구의 일야 최종편)뿐만 아니라 <황포강변의 고별>과 <황포강변의 추억>, <그 여자의 일생> 등에서 전옥과 함께 출연하였다. 그리고 이들 음반에서 동일 인물인 이응호와 왕평은 각각 작가와 배우로 때로는 -배우와 작가로- 마치 다른 사람인양 표기되어 있다. 김진문 역시 작가보다 배우로서 녹음에 참여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명배우로 명성을 떨쳤던 신불출과 황철 역시 간간이 음반극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음반극 연구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대중극 및 대중문화의 장에서 활동했던,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들의 존재를 드러내준다. 여기에는 당시의 신문과 잡지 기사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배우들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수의 배우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배우로는 강석연, 김복진, 김선영, 김선초, 김연실, 김영옥, 문예봉, 복혜숙, 석금성, 신은봉, 신일선, 이경설, 이에리수, 이월화, 전옥, 지경순, 차홍녀 등의 잘 알려진 이름뿐만 아니라, 강정애, 김소조, 나품심, 독은린, 박영신, 박혜숙, 석정의, 심정화, 윤백단, 윤홍심, 이리안, 이옥례, 지계순, 지최순, 한은진, 한일송, 한정희, 홍정숙 등과 같이 다소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남배우로는 강홍식, 김영환, 김일영, 김진문, 김창기, 나운규, 박세명, 서월영, 신불출, 심영, 안종화, 왕평, 이경손, 이백수, 이웅, 황철 등의 잘 알려진 이름뿐만 아니라, 김창배, 김효산, 박제행, 김성운, 김원호, 김효산, 김파영, 도무, 서일성, 양백명, 유성준, 윤건영, 이경일, 이춘풍, 임서방, 최선, 한지석 등의 다소 낯선 이름도 함께 확인된다. 이들 극작가와 배우 등에 대한 논의는 이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보형·홍기원·배연형 편저, 『유성기음반가사집: 전통음악·극·양악·유행가』 1·2, 민속원, 1990·1994.
-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3·4: 콜럼비아 음반』, 민속원, 1992·1994.
- 최동현·임명진, 『유성기음반 가사집 5·6: 리갈, 콜럼비아』, 민속원, 2003.
- 이준희·장유정 엮음, 『유성기음반 가사집 7』, 민속원, 2008.
-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엮음, 『한국 유성기음반: 1907~1945』, 한걸음·더, 2011.
- <유성기로 들던 연극모음>(신나라레코드 발매 CD집, 1996)
- <유성기로 들던 무성영화모음>(신나라레코드 발매 CD집, 1997)
- <1934년 그 해 이 땅의 연극 (콜럼비아 유성기 원반 13)>(노재명 편, LG미디어 발매, 1996.
- 한국 유성기음반 아카이브 홈페이지(www.sparchive.co.kr)

2. 단행본

- 최동현·김만수,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 속의 대중희극』, 태학사, 1997.
- _____, 『일제강점기 유성기음반 속의 극·영화』, 태학사, 1998.
- 마틴 에슬린, 원재길 옮김, 『드라마의 해부』, 청하, 1987.

3. 논문

- 김상교, 「극예술연구회의 방송극 연구」, 『한국연극학』 제12권, 1999.
- 김재석, 「1930년대 유성기음반의 촌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1992.
- 박명진, 「30년대 유성기 음반 희곡의 근대성」, 『국어국문학』 제124집, 1999.
- 서재길, 「드라마, 라디오, 레코드 - 극예술연구회의 미디어 연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6집, 2007.
- 우수진, 「무대에 선 카츄샤와 번역극의 등장」,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8호, 2013.
- _____, 「미디어극장의 시대, 유성기와 라디오」, 『한국학연구』 제34집, 2014.
- _____, 「카츄샤 이야기 -<부활>의 대중서사와 그 문화 변용」,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 최동현·김만수,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영화설명 대본’에 대하여」(자료해설), 『한국극예술연구』 제6집, 1996.
- _____, 「1930년대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만담·넌센스·스케치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7집, 1997.
- _____, 「일제강점기 SP 음반에 나타난 대중극에 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8집, 1998.

Abstract

SP Records Drama

- 'Media Theater' of the Popular Drama, Narrative, and Culture

Woo Sujin

Key words: gramophone, gramophone records, media drama, media theater, popular play, popular culture, record drama, record theater, SP

접수일: 2015년 4월 30일

심사기간: 2015년 5월 11일~5월 31일

게재결정: 2015년 6월 19일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first is an overview of the discography of the SP record drama which was published during 1920-30'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made up the SP record lists, checked the left lyrics and the sound source, and searched the names of the actors, writers, directors, etc. who participated in the record work. Also it investigated how the SP record drama, the popular narrative, the popular songs were interacting each other in the sphere of the popular culture. Therefore, The study of the SP record drama is very important for the study of the popular culture. The SP record was such a commodity that could not help considering the popular trends.

There were so many 'classic/traditional' repertoires as traditional novel or Pansori-like *Chunbyangjeon*(春香傳), *shimchungben*(沈青傳), and etc., the famous *Shinpaekuk*(新派劇, New Trend Drama) -as like *Changhanmong*(長恨夢), *Bulyugyu*(不如歸), and the western classics -like *The Resurrection*(by Tolstoy), *Les Misérable*(by Hugo), and etc. However, the most of the SP record drama was the new original works. The motifs and main characters of the SP record drama could be easily found in stage drama, movie, novel, and popular songs. And the famous and popular actors, singers, silent-film narrators were employed in the record recoding. Also the representative works of 1930's such as *Fooled by love*, *Hurt by Money*(by Im Sungyu), *The Power of Mother*(by Lee Suhgyu), and even the works of Yu Chijin were sharing the motifs, main characters, and narrative with the SP record drama and the popular narratives.